

近世儒學과 退溪思想의 현대적 의의**

워렌 스미스 (Warren W. Smith)*

한국의 위대한 유학자 퇴계 이황(1501~70)에 관한 제3차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퇴계에 관해서 이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으나 미국이나 다른 서구학자들은 이제 겨우 퇴계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계를 알게 되고 그의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경우가 여러분들의 흥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여기에 간단히 밝혀 보기로 합니다. 본인이 1946년에서 1948년까지 한국에서 滯在할 때, 정치적 당파싸움이 李朝 후반기를 특징지우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 퇴계가 이러한 당파싸움의 기원에 책임이 있는 철학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국을 떠나기 얼마 전에 紹修書院騰錄 한 부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 문헌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서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퇴계는 그의 사상이 당쟁의 원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노력으로 한국에 근세유학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탁월한 교육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의 철학의 독창성과

* 前 카라카스대학 교수

** 원제 : Neo-Confucianism and T'ogyo Today

이 논문은 1978년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그의 위대한 사상이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근세유학이 보급되도록 한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은, 16세기의 조선사에서 서원이 설립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본인의 퇴계연구에 있어서의 주된 관심사는 교육과 서원의 발전에 퇴계가 어떤 공헌을 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퇴계철학의 특성이 무엇이며, 그의 사상이 그의 宋의 스승 朱熹(1130~1200)의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를 독창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程朱學은 14세기 중엽에 한국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며, 1392년 이후로 한국의 철학적·문화적·윤리적 규범의 토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유교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주희의 철학은 물론이고 중국에 근대유학을 정립한 주희 이전의 학자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계야말로 중국 성리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최초의 한국학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는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처음 인쇄된 朱子大全을 1544년에 비로소 입수했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습니다.

퇴계의 仁義禮智의 사단과 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그의 理貴氣賤思想의 정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퇴계는 理 속에 능동성이 있으며 이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희보다 유일보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大學에 나오는 格物致知라는 주자의 유명에 적용시킴으로써 퇴계는 올바른 행위의 기초로서는 완전한 원리에서 비롯되는 선현들의 言·行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연과 우주에 顯現되는 완전한 원리에서 비롯되는 선현들의 언행은 인간의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의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적 方正에 이르게 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퇴계의 이론은 다른 또 하나의 유명한 한국 철학자인 栗谷 李珣 (1536~84)에 의해서 비판받게 되는데, 율곡은 우주에 있어서 능동력의 근원은 氣 자체 속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계와 율곡, 두 사람의 대립적인 철학사상체계 속에서 李朝의 당쟁은 16세기 이후부터는 철학적인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 두 대립되는 사상체계는 국가정책 입안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문제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해독하는 독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Munsang Seoh, "The ultimate concern of Yi Korean Confucians : An analysis of the I-KI debates," *The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 5, (March.),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19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퇴계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되는 그의 교육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6세기 한국 유학자들의 주된 희망은 벼슬을 하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그의 평생을 학문과 교육에 바쳤습니다. 유학자들의 공직지향성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활동은 德治에 있다는 유교적 신념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치체계는 벼슬생활을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직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도 벼슬생활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교적 고전과 역사에 통달한 사람이면 공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先例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과거의 선례가 담겨있는 유교 고전, 역사, 문학작품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그의 생애에서 몇 가지의 말단공직에 종사한 일이 있었지만 벼슬을 기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퇴계의 개인적인 태도가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과 이렇게 당착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퇴계 생존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유학자들과 그의 가족과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귀양살이 보낸 戊午(1498년), 甲子(1504년)의 兩 사화가 퇴계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퇴계의 나이가 18세 때에 다시 乙卯(1519년)사화가 일어났고, 인종 서거 후에 일어난 乙巳土禍(1545년)에서는 퇴계 자신이 애매한 누명을 쓰고 공직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1548년에 다시 복직되기는 했으나 퇴계는 그 후 벼슬을 싫어하게 되어 여러 가지 벼슬이 주어졌어도 병을 이유로 사양을 하다가 잠시만 벼슬에 머물렀다가 곧 떠나버리거나 했습니다. 사실 퇴계는 학문과 교육을 더 좋아했는데, 이는 아마 그가 벼슬을 통해서 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퇴계는 명종 당시에 죽벌관계가 출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파벌정책의 병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지방의 향교, 사학, 서울의 성균관 등의 관학의 피폐는 네 차례에 걸친 사화와 죽벌정치의 부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꺾박받은 학자들은 은퇴하여 더 이상 벼슬이나 관학에서의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벼슬길에 오른 때에는 무엇을 아느냐 보다는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급제에 관학에서의 수학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과거시험도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쳤고 유교 철학이나 역사보다는 詩文을 더 강조했습니다.

퇴계는 이러한 사정들을 꿰뚫어보고 벼슬을 할 때나 그만 두고 낙향했을 때나 학업에 전념했으며, 당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퇴계의 교육적 이상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가 서원 설립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당시에 서원이 어떤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白雲洞書院으로 알려진 한국 최초의 서원은 유학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周世鵬(1495~1544)이 경북 풍기군수로 있을 때 1543년에 설립했습니다. 백운동서원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서원들은 유교철

학을 강론하고 위대한 유학자들은 제사하기 위하여 세워진 일종의 지방 사립학교였습니다. 고려 유학자 安珦(1243~1306)을 제사하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주세붕의 노력은 1546~47년에 경상감사로 있었던 安瑒(1501~60)에 의해서 계승되었는데, 안현은 토지의 산물과 현물, 그리고 使役을 확보함으로써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私學으로서의 서원은 중앙집권과 관료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이조시대의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유지와 성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승인은 중국의 선례에 따라서 물질적인 원조, 使役土地, 서적, 면세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서원의 역할을 정부의 기구 속으로 은근히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퇴계는 이 점을 알고 그가 1548~49년에 풍기군수로 있을 때 백운동서원에다가 사액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퇴계의 청원 속에는 토지, 노비, 서적 등을 하사할 것도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그의 청원은 1550년에 조건부로 승인되어 백운동서원은 紹修서원으로 公稱되게 되어 한국에서 수백의 서원이 설립되는 효시가 되었는데, 이는 대원군이 1871년에 전국적으로 47개의 서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시킬 때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사액청원을 통해서 퇴계가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퇴계 자신의 글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글에서 퇴계는 서원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들은 유능한 학자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지방의 학교들은 쓸모없는 학문의 장식물로 되어 버렸고 수학의 방법도 퇴보해 버렸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향교의 출입을 기피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토록 피폐한 향교를 재건할 방법은 없고, 서원을 육성하는 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만약 서원을 잘 육성하면 교화되어 治政이 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서원 육성이야말로 王道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계는 중국이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한 이상, 우리 나라도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啓導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역설했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래야만 교육의 기반이 확립되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근원이 없는 강과 같아서 아침에는 물이 많다가도 저녁에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는 이끌어 주고 밑에서는 따르는 데 있습니다. 主君이 본이 되면 만백성이 따를 것입니다. (上沈方伯書)

퇴계의 노력으로 서원은 정부의 승인과 원조를 받으면서도 사학으로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6세기 초반의 한국사를 특징짓는 사화와 당쟁을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수많은 유학자들을 통해서 주자학이 전국으로 보급되기를 퇴계는 바랐던 것입니다.

서원이 사학이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어갈 위험도 적을 것이고 또 과거준비가 유일한 목적이었던 관학에 비해서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도 훨씬 자유스러운 것으로 퇴계는 기대했습니다. 그는 서원에 대한 그의 뜻을 다음의 시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白首窮經道未聞. 幸深諸院倡斯文.
如何科目波翻海, 使我閒愁劇似雲?

퇴계가 1570년에 서거한 얼마 후에 당쟁이 재현했는데 이 당쟁에 이미 언급된 퇴계의 철학적 이론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당쟁의 구실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당쟁이야말로 권력투쟁이었으며 주자학적 이론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학적 인간관과 우주와 사회에서 인간의 정당한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 입각

해서 무엇이 정당한 정책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주자학적 가치관과 이론은 현대적 문제의 해결에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예컨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유교적 고전을 시험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는 없어졌다—유교적 관점이나 가치관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퇴계의 성리철학을 오늘날 학교의 필요과목으로 만든다면 과거와 현재의 중간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때의 문제는 퇴계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 현대의 사상과 지식과는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堯舜과 禹는 이제 사회적 귀감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초기 중국 역사에 관한 한갓 신화의 구실을 할 뿐이며, 또 현대 화학의 원소주기율표 대신에 주자학의 음양오행설을 고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분야에 있어서는 주자학적인 문제들이 현재에도 깊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도 부모는 존재하며 그들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록 천명을 받았다고 하는 왕은 없을지라도 오늘날에도 정부의 권위는 존속하고 있으며 이 권위가 정의롭게 행사될 것과 개인이 이 정부에 대해서 특정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준칙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비록 퇴계의 세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퇴계의 절대적인 정직과 그의 사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자세는 우리들의 모범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독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믿는 바를 말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계학은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중국인들이 수천년 동안 자연을 관찰하여 정립한 근세유학 우주관의 기본명제 對待개념은 특히 生理律論(biorhythms)의 연구가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지적인 풍토에 비추어 보아 매우 현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연구열이 그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종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퇴계를 관념론자로 간주하여 배척하는가 하면 그의 철학적 반대자인 율곡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부합되는 진취적인 유물론자로 해석하여 추앙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특정한 인물의 사상을 오늘날의 맑스주의와 같은 그릇된 세계관에 뜯어 맞추려고 하는 연속적인 장난은 논리적 차원에서 수긍될 수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역사적인 것입니다.

퇴계와 율곡 양자는 다같이 주자학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들 이론의 상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무시되면 율곡을 숭앙하는 북한이 현대적 노론이 되고 퇴계를 숭앙하는 남한이 현대의 남인이 되어 이조의 당쟁을 현대사회에 재현시킬 위험마저 있습니다. 퇴계와 율곡 양인은 그들의 철학적 교리에 매달려 일어난 당시의 사회를 병들게 만든 정치적 당파싸움을 누구보다도 심하게 개탄했으며, 퇴계는 주자학의 진흥을 통해서, 그리고 율곡은 참정을 통해서 이러한 권력투쟁을 완화시키시 위해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퇴계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퇴계의 주자학 해석이 藤原惺窩(1561~1619), 林羅山(1583~1657), 山崎闇齋(1618~82) 등 德川時代의 중요한 초기 일본 유학자들에게 새로운 견식을 주었다는 점 등은 阿部吉雄을 비롯한 몇몇 일본 학자들이 철저하게 다룬 문제입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横井小楠(1809~69)과 原田永孚(1818~91)가 퇴계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元田永孚는 明治天皇에게 유학강론을 한 사람이며, 또 1910년에 공포된 소위 제국교육헌장 속에 포함한 원칙과 문장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사람들도 40이 넘는 분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이 헌장은 일본인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의 기초는 유교적 도덕이라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유학자가 기대한 대로 이 현장은 충성과 효도, 그리고 다른 의무들은 일본 황제와 皇家에만 향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에 수용된 퇴계의 사상이, 1916년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후에는 퇴계 자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까지만 해도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중국전문가나 학자들은 일본이야말로 유교가 살아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본인의 「유교와 현대일본」이라는 책에서도 자세히 검토해 보았지만 상당히 허황되고 위선적인 것으로서, 이는 다만 일본의 유학자들이 그들의 윤리적 신념을 일본제국주의적 요청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야말로 공자가 제창한 王道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본인이 이 점을 언급하는 목적은 퇴계와 같은 진정한 유학자는 그들의 원칙을 벼슬이나 물질적 명예를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는 이씨조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도 행정직과 입법직은 있습니다. 퇴계의 廉直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아직도 만인의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술회의에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퇴계의 사상이 비단 한국에서만 추앙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널리 추앙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 병 재 譯)